

민주 "순천·광주 서구 또는 광산구 양보" 민노 "3곳 더 달라"

주민에게 물어봤나... 호남 야권연대 시끌

지역 위원장들 강력 반발... 내일 협상 시한

6·2 지방선거 야권 연대 협상의 최종 시한(15일)을 이틀 남겨두고 막바지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어느 곳이 민주당의 양보지역에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이런 연대가 어디 있느냐"며 "지지를 높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며, 지역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호남 지역에서의 연대 성사 전망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잘하면 되지, 왜 호남까지 내놓아야 하는냐는 목소리가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욱이 김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협상 대표단에 전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도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는 김 최고위원이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장과 호남에서만은 예외적으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배제하는 연대를 해야 한다는 국민참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참여당은 연대 예외지역에 대해 양당 간 협상안을 마련하고, 대신 민주당은 지도부 지역구부터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당 협상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지역 배분, 호남지역에서 연대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남지역 연대 부분에서는 각 당의 입장차뿐 아니라 민주당 내 반발이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전남지사 경선 여론조사 왜 당원 아닌 도민대상?

"당원수가 1700명 밖에 안되거든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면서 당원을 배제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대식·김보민·정 훈 예비후보 3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18일 양일간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결과로 전남도지사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지사 경선은 도민 대상 여론조사로 실시하기로 해 그 궁극점이 더해지고 있다. 도민 여론조사 배경에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남지역 당원이 고작 1천700명에 불과함에 따라 전남 인구 19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샘플로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으로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3명이나 나올 때 이를 최대한 전남도민들에게 '어필'해 이번 기회에 불모지인 전남에서 한나라당의 인지도를 크게 높여보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남지역 핵심당원만 2천여 명이 되지만, 도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전남지역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묻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 하는 경선인 만큼 철저한 경선관리를 통해 좋은 후보, 능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도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한국부동산컨설팅' (Korea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전통성인 커뮤니티' (Traditional Adult Community) in Gwangju, featuring a phone number 1588-3533 and a 100% satisfaction guarantee.

Advertisement for '토지매매' (Land Sale) in Naju, listing details like land area (4,000 pyeong), building area (650 pyeong), and price (13,500 pyeong).

Advertisement for '선거차량' (Election Vehicle) services, including LED vehicles and campaign materials, with contact info for JWAD.

민주 기초장 후보 속속 윤곽

나주시장 후보 임성훈씨

구례군수 후보 서기동씨

곡성군수 후보 조형래씨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 및 후보

◇광주

Table listing candidates for basic local government positions in Gwangju, including Naosu, Gwangsan, Bukgu, and Namgu.

◇전남

Table listing candidates for basic local government positions in Jeonnam, including Gureong, Naju, Gokseong, Damyang, Hwasong, Yeosu, Jinan, Gwangsi, Haenam, Wando, Mokpo, Gogoseong, Boseong, Shinan, and Suncheon.

* 경선방법 : 전당원여론조사 50% + 국민여론조사 50%
*순선 : 선거인단투표 (국민 50% + 당원 50%)
*단수후보확정 = 정홍(이명환)·영광(정기호)·장성(김양수)
*강진군 = 강진원 후보 확정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지역 동구청장 후보로 현 유대명 청장이 확정됐으며, 전남은 구례군수와 곡성군수·강진군수·나주시장 후보가 확정되는 등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경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 경선방법이 시민공천배심제가 도입된 남구청장 경선을 제외하고 서구와 광산구·북구청장 후보는 이번 주말과 휴일 모두 확정된다.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오는 17일 각각 서구 빛고을 체육관과 광산구 호남대 체육관에서 국민참여경선(국민 여론조사 50% + 당원 직접투표 50%)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전주·김성욱 예비후보가 맞붙었지만, 모두 불법선거 의혹에 휘말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산구청장 경선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민형배·유재신 후보가 맞붙는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송광운 현 정장파와 이형석 후보가 전남대 체육관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서·광산 17일, 북구 18일, 남구 24일 경선

영암·화순군수 14일, 광양시장 19일 결정

북구청장 경선의 경우 이른바 '체육관 경선'에 앞서 16일부터 이뤄지는 국민 여론조사도 승부를 좌우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위원장인 김재균·강기정 국회의원의 '의중'이 경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공천 배심원제로 치러지는 남구청장은 경선은 오는 24일 치러진다. 현재 최영호·정재훈·김영집·김화진 등 4명의 후보가 공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 = 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나주시장 후보로 임성훈 예비후보를, 구례군수 후보로는 서기동 현 군수를, 곡성군수 후보로는 조형래 현 군수를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전 당원여론조사 50%와 국민 또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통해 선출됐다.

문조사결과 50%를 통해 선출됐다.

앞서 강진군수 후보로는 강진원 예비후보가 선정됐다.

또한, 이날부터 담양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며, 14일에는 영암군수와 화순군수 국민참여 경선이 실시된다.

경선방법이 시민배심원제도로 도입된 무안군수와 여수시장 후보경선은 오는 18일 각각 무안 스타체육관과 여수시민회관에서 치러진다.

현재 민주당 무안군수 예비후보로는 서삼석·정해군씨, 여수시장 예비후보로는 김강식·오현섭·배성기씨로 압축됐다.

광양시장과 진도군수·해남군수·완도군수 경선은 오는 19일 치러지며, 20일에는 목포시장과 고흥·보성군수 경선이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21일과 22일에는 각각 함평군수와 신안군수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며, 순천시장 경선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마지막인 29일 치러진다.

이밖에 단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장흥과 영광, 장성 지역의 경우 이미 이명환·정기호·김양수 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됐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